

## 공연전시소개

# 11월의 공연

# MUSICAL

### 죽음마저 사랑에 빠지게한 황후가 온다 뮤지컬 <엘리자벳>

오는 11월 17일 개막하는 뮤지컬 '엘리자벳'은 황후 엘리자벳 역에 옥주현, 김소현, 신영숙, 죽음(Der Tod) 역에 박형식, 정택운과 루케니 역에 이지훈, 강홍석, 박강현, 황제 프란츠 요제프 역에 민영기, 손준호, 대공비 소피 역에 이소유, 이태원 등 막강한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모차르트!', '레베카'를 탄생시킨 세계적 거장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의 작품으로 1992년 오스트리아의 씨어터 안 데르 빈(Theater an der Wien)에서의 초연 이후, 27년간 독일, 스위스, 헝가

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세계 12개국에서 공연을 올리며 누적 관객 수 1,100만을 돌파한 세계적인 흥행작이자 독보적인 스테디셀러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절제되고 통제된 삶 속에서 자유를 꿈꿨던 황후 엘리자벳역에는 매시즌 캐릭터와 싱크로율 200%의 열연을 펼쳐 온 옥주현과 2013년에 이어 다시 한번 도전하는 단아하고 청순한 외모에서 나오는 폭넓은 음역대, 표현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김소현이 열연한다. 특히 '레베카', '모차르트!' 등에서 명성을 쌓아온 신영숙이 새롭게 참여한다.



‘엘리자벳’의 로버트 요한슨 연출은 “그녀의 음악성과 음색은 매우 특별하며, 20년 배우의 삶에서 묻어나는 여러 흔적들은 깊은 연기를 가능하게 하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갖고 있다”고 전해 새로운 엘리자벳의 탄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17-12.6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 나의 아저씨 나의 사랑

####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Daddy Long Legs)>

클래식 감성 로맨스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Daddy Long Legs)>가 삼연으로 8월31일부터 11월18일까지 백암아트홀에서 공연된다. 1912년 이후 오늘까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진 웹스터(Jean Webster)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원작으로 폴 고든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세트와 의상의 변화가 크고 화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두 명의 인물이 편지를 매개체로 웃고, 울

고, 성장하고 사랑하는 과정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클래식한 감동을 선사한다.

키다리 아저씨의 후원을 받아 성장하는 제루샤 애봇 역에는 임혜영, 이지숙, 유리아, 강지혜가 출연한다. 제루샤를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평범한 대학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녀의 성장을 돕는 제르비스 펜들턴 역에는 초연과 재연에 이어 다시 한 번 신성록, 송원근, 강동호가 함께한다. 신성록은 특유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와 디테일한 연기를 보여주며 뮤지컬<키다리 아저씨>의 초연과 재연에서 흥행을 이끌었다. 로맨틱한 목소리와 감미로운 무대로 여심을 사로잡는 송원근과 풋풋하고 순수한 제르비스를 표현하며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던 강동호 등 세 명의 제르비스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네명의 제루샤들 어떤 캐미를 완성 할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낸다.

8.31-11.18 백암아트홀



### 세종대왕의 고뇌를 듣다 뮤지컬 <1446>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기념하여 제작 되는 뮤지컬 <1446>이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된다.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그리는 작품으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충령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한글 창제 당시 세종의 고뇌와 아픔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낸다. 제목인 <1446>은 한글이 반포된 해를 나타낸다.

뮤지컬 <1446>은 2017년 10월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성공적인 리저널 트라이아웃 공연을 시작으로 음악과 스토리 등을 호평 받았으며 해외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약 2년간의 탄탄한 제작과정을 거쳐 관객들을 만나는 뮤지컬 <1446>에 뮤지컬계 실력과 배우들이 함께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

民)에 근간을 두고 창의와 혁신을 구현했던 세종 역에는 정상윤과 박유덕이 무대에 오른다. 태종 역에는 남경주와 고영빈이 함께한다. 역사 속에는 없지만 세종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캐릭터 전해운 역에는 박한근과 이준혁, 김경수가 트리플 캐스팅 되었다. 소헌왕후 역에는 박소연, 김보경이 함께한다. 양녕대군과 장영실을 함께 선보이는 1인2역에는 박정원, 황민수가 무대에 오른다. 세종의 호위무사 윤겸 역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코치 이지석과 김주왕이 화려한 무술연기를 선보인다.

10.5-12.2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 알렉상드르 뒤마의 불후의 명작 뮤지컬 <아이언 마스크>

알렉상드르 뒤마의 불후의 명작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아이언 마스크>가 전 세계 라이선스 초연으로 한국에서 공연된다. 17세



# MUSICAL

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루이 13세를 둘러싼 음모를 밝혀낸 후 세월이 흘러 총사직을 은퇴한 삼총사와 총사 대장이 된 달타냥이 루이 14세를 둘러싼 비밀을 밝혀내는 모험을 담은 작품이다. 원작 소설의 탄탄한 전개와 영화의 화려한 액션을 담아내며, 17세기 프랑스의 화려함을 그대로 재현해낸 무대 위에서 사랑과 우정, 애증과 복수를 둘러싼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선보인다. 빌보드 차트 탑에 오른 'All For Love'의 작곡가 '브라이언 가이 아담스'(Bryan Guy Adams)가 작품의 작곡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랑스의 왕이자 허영심 많고 독선적인 루이와 루이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이유로 철가

면이 씌워진 채 감옥에 갇힌 필립 1인2역에 장동우, 산들, 이창섭, 켄이 출연해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낸다. 삼총사가 은퇴한 후 유일하게 왕궁에 남아 왕실 총사대장이 된 달타냥 역에는 배우 서영주와 이견명이 캐스팅됐다. 삼총사의 리더인 아토스 역에는 배우 김덕환, 박준규, 김영호가 무대에 올랐다. 은퇴 후 종교에 귀의해 신부가 된 아라미스 역으로는 배우 최낙희와 류창우가 분하고, 삼총사 은퇴 후 부인을 만나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포르토스 역에는 이병준, 김법래가 출연한다. 다양한 세대의 실력과 배우들이 모여 전 세대를 아우르며 모두가 즐기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13-11.18 BBCH홀